

봄갈이와 농사준비 관전 시기, 광범한 농민들 주의!



“봄에 한알의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만알의 열매를 거둔다.” 일년지계는 봄에 달려있는바 현재는 봄갈이와 파종의 중요한 시기이다. 종자, 비료, 농약은 농업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자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가짜 및 불량 종자 구별 방법

- 정규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 신뢰할 수 있는 농자재 매장에서 종자를 구입할 것을 권장하며 품질 보증이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 상인이나 방문판매업체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종자 포장재의 표시 정보 확인하기
○ 라벨 정보 : 종자 포장재에는 반드시 작물 종류, 품종명, 종자 유형, 순종량, 생산일자, 품질 기준, 제조사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종자 판매허가번호, 검역증명번호 등이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라벨 정보가 무락되었거나 실제 종자와 일치하지 않다면 가짜 종자일 가능성이 높다.

○ 위조 방지 조화 : 포장재에 있는 위조 방지 코드나 QR 코드를 확인하여 위조 방지 인증 및 추적을 할 수 있다.

3. 종자 외관 및 품질 확인하기

○ 알갱이 충실도 : 종자가 알이 차고 균일한 색상을 띠는지 확인해야 한다. 빈 알, 곰팡이 핀 알, 불순물이 섞여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발아시험 : 가능하다면 파종전 발아시험을 진행해 종자의 발아율이 국가표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저가 및 무표시 종자 주의하기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 시중 평균보다 훨씬 저렴한 종자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표시 정보가 없는 종자 : 라벨이나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종자는 구

매하지 말아야 한다.

5. 판매업체 자격 확인하기

○ 면허 및 증명서 : 종자 판매점이 사업자등록증과 농업국에서 발급한 '농작물 종자 판매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자의 품질이 보장된 정식 유통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장 계약 주의 : 일부 업체에서 '수확량 보장' 등의 계약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사기성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 비료를 구별해야 할까?

첫째,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비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먼저 외부 포장 상태, 알갱이의 균일성, 색상을 살펴봐야 한다. 정규적으로 생산된 비료는 포장에 규격에 맞고 튼튼하며 포장 외부에는 제품명, 생산업체명 및 주소, 생산허가번호, 비료등록번호, 시행표준번호, 유효성분, 순종량,

제조일자, 품질 보증 기한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있다. 또한 검사 보고서와 포장 설명이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총영양분 함량은 질소, 린, 칼리움의 함량만을 포함해야 하고 미량원소 함량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손으로 잘 만져봐야 한다. 비료를 손으로 힘껏 쥐어보고 눌러보고 비벼보면서 촉감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품 비료는 손에 닿는 느낌이 기름기 있게 축축하며 알갱이가 고르고 매끄러운 반면에 가짜 비료는 건조하고 알갱이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표면이 거칠게 느껴진다.

셋째,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 이는 비료의 특유한 향을 맡아 진위를 가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일부 비료에 특히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탄산수소암모니움은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황산암모니움과 과인산칼리움은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가짜 비료는 뚜렷한 냄새가 없다.

넷째, 물을 태워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비료 샘플을 가열하거나 불에 태울 때 나타나는 연기 상태, 용해 모습, 잔여물도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산수소암모니움 소량을 스푼에 놓고 가열하여 끓는 듯한 모습과 함께 강한 암모니아 냄새의 하얀 연기가 나고 스푼 바닥에 노란색 결정체가 남으면 진품이다. 일부 농민들이 담배 불이나 라이타로 비료를 태워보는 것도 이 같은 원리이다.

다섯째, 물에 적서 판단할 수 있다. 비료는 물에 녹는 용해도 테스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품 농약은 반드시 '3 중' (농약등록증·생산허가증·표준번호), 제품명, 유효성분, 함량, 독성 등급, 용도, 중량, 사용법, 제조일자, 유통기한,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 상호, 주소, 우편번호 등이 완벽히 기재된 라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 한가지 사항이라도 무락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구입해서는 안된다.

/ 길림농촌보

길림성 량질 고기소 랭동정액 보조 프로젝트, 량질 송아지 탄생



4월초부터 장춘시목축본소 (总站)는 고기소 사육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反馈)을 얻어 받고 있다. 사육호들은 길림성 량질 고기소 랭동정액 보조금 프로젝트의 랭동정액을 활용해 탄생한 송아지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개량 효과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길림성목축업관리국이 길림성의 고기소 번식 개량 과정을 가속화하고 고기소와 해당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사육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육장 (호)의 적극성을 보호 및 동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편적 혜택 정책이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춘시는 성내에서 술선적으로 동원대

회를 개최하고 시행 방안을 인쇄 배포하였으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랭동정액을 배부하는 한편 조사연구, 감독지도를 실시했다.

이외 위탁 공중계정, 인터넷, <장춘시 고기소 사육호 및 고기소 번식 기술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배포 등 형식으로 적극 홍보하여 '한가구도 빠짐없이, 한사람도 무락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장춘시 룽원구, 정월구, 공주령시 등지에서 량질 개량 송아지가 육속 태어나 현재까지 이미 5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송맹번기자
/ 사진 장춘시목축본소

흑토지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한결같은 품질 고수



길림출채농업의 생산공장에 들어서면 자동화 설비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라인에서 지능형 로봇팔이 섬없이 움직이는 분주한 풍경이 펼쳐진다.

올해초 이 기업은 새해 첫 성공을 거두며 8,000만원을 돌파하는 대규모 주문을 다수 체결했다. 현재까지 1분기 공기를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기업이 12년간 흑토지에서 특색산업을 엔진으로 삼아 공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길림출채농업은 유기농 콩 재배, 정밀가공, 제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아우르는 농업산업화 국가 중점 선두기업으로 2024년 매출액 4억 3,000만원을 달성하며 전국 식용유 가공기업 50강에 이름을 올렸다. '길림 콩기름'은 중국 농산물 브랜드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길림 좋은 량유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길림출채농업의 공산업 지도는 재배단계에서 시작된다. 해당 회사 브랜드마케팅부 책임자 맹원은 "올해 회사는 3만 7,500무 (약 2,500헥타르)의 유기농 콩 재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기업 + 협동조합 + 농가' 모식을 통해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생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생물 육종 프로젝트를 진행, 해초와 질병에 강하고 고유지방, 고단백의 우수한 콩품종을 성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원료 품질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공생산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 재배면적이 16만무를 돌파하며 '정책 유도, 선두기업 주도, 농가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가공단계의 기술 돌파는 산업 승격의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해 개조한 지능형 생산공장은 사물인터넷 설비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압착 온도 조절부터 제품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 정밀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개선된 물리적 압착 공정은 콩의 기름 추출률을 3%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물 스테롤, 비타민 E 등 영양성분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기업은 공기를 생산 부산물을 활용해 동북지역 최초의 콩 단백질 식이섬유 생산라인을 건설했으며 이중 섬유 영양 파스타, 식이섬유 곡물 스낵 등 혁신 제품을 개발했다. 콩단백질 국수의 연간 생산능력은 2만톤에 이른다.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아 길림출채농업은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 재배단계에서 디지털 관리 추진, 토양 수분 모니터링 및 병해충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공 분야에서 지능형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 10만톤의 고급 기름 생산 목표를 달성하였다. 시장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판매 네트워크 구축, 3, 4선 도시 및 향진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150개의 새로운 판매망 추가를 계획했다.

"우리의 목표는 공기를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산업의 혁신자가 되는 것"이라며 맹원은 기업은 1억 8,000만원을 투자해 연간 10만톤의 자작나무 수액 산업단지와 콩 식자재 공급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생물 발효, 기능성 성분 추출 등 분야에 대한 공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전시 콩단백질 식이섬유 대상의 전면적인 가동과 함께 주변 농가의 소득이 가구당 평균 1만 5,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촌 진흥에 산업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흑토지에서 식탁까지, 전통 농업에서 현대 식품공업까지, 길림출채농업의 발전 궤적은 중국의 농업산업화 승격의 축소판이다. 정책 지원과 기업 혁신의 이중 주력으로 이 비옥한 흑토지는 더 많은 기능성 품목에 '화전풍'의 금자탑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 길림일보

길림성 차별화 보조 방식으로 보호성 경작 면적 증가 인도

얼마전 길림성 해당 부문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길림성농업농촌청과 길림성재정청은 연합으로 <길림성 2025년 보호성 경작 실시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올해 전 성 보호성 경작의 4,000만무 실시를 명확히 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안정시키는 토대에서 차별화한 보조 방식을 통해 고품질 보호성 경작 면적이 늘어나도록 질서 있게 인도해야 한다. 현금과 향급의 높은 표준의 응용기지와 실시 효과 관측 지점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견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작업 표준과 관리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킴으로써 복사, 견인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품질에 많이 보조'하는 시범을 조직, 전개하여 짚대피복 스트림경작 (秸秆覆盖条带耕作) 기술 모식의 보조 표준을 적당히 높이는 것을 통해 적응성이 강하고 농가가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보호성 경작 기술 모식의 보급을 추진하면서 보호성 경작을 고품질로 실시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시 생성

금년도 보호성 경작 보조는 주로 작업 보조, 고품질 응용기지 보조와 실시 효과 관측소 보조에 사용된다. 그중 작업 보조는 차별화한 보조를 실시하여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먼저 공시하고 후에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보조 표준에서 짚대 피복량에 따라 옥수수작물 보조 표준을 무당 25원, 50원, 70원이라는 3개 등급으로 나누며 '고품질에 많이 보조하는' 시범에 참가한 현에서는 당지의 농업생산 실례와 결부하여 짚

대 피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스트림경작과 파종작업 원가에서 짚대피복 스트림경작 기술을 응용하여 보호성 경작을 전개하는 것을 대상해 보조 표준을 적당히 높일 수 있다. 콩, 잡곡, 유채, 밀류 등은 원칙적으로 보조 표준을 무당 35원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작업 보조 대상은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는 농업경영주체와 작업봉사주체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길림성은 2025년에 보호성 경작을 적합한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중서부 랑곡주생산지를 중점으로 전형적인 흑토지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적합한 지역의 보호성 경작 실시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옥수수작물을 보호성 경작 보급과 응용의 중점으로 하면서 콩, 잡곡, 유채, 밀류 등 기타 작물의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를 추진하게 된다.

방안은 정책 연동을 강화하고 흑토지 보호 프로젝트, 짚대 종합리용, 농기계 심층 보급과 정비 등 면의 관련 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견지하며 정책에서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추진하고 보호성 경작을 전형적인 흑토지역에 치우치는 토대에서 더욱 많은 적합한 지역의 보호성 경작을 시범, 견인하도록 전 성 각지에 권장하였다. 각지는 무경운 (혹은 적은 경운) 파종 기술을 모단계의 깊은 후처리, 물 비료 일체화, 층차를 나눈 시비, 한번 분사로 다방면 축진 등 단위당 면적 생산량 향상 기술과 집대성하고 배합하여 보호성 경작의 안정적인 생산과 풍작 효과를 협력하여 공고히 하고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 농민일보

안도현 신합향 림하삼 재배로 향촌 진흥에 활력을

최근년간 안도현 신합향은 전체의 삼림자원에 의탁해 림하삼 재배 산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생태 우세를 경제동력으로 전환하고 향촌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장백산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신합향의 삼림피복률은 90.5%에 달하고 5,000헥타르 이상의 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양에는 풍부한 유기질이 들어있다. 적절한 적산온도와 강수량으로 인해 신합향 림하삼은 기타

지역의 림하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대파촌 인삼재배농 두씨는 "8헥타르의 림하 서양삼을 심었는데 재배 과정에 비닐하우스도 설치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는다. 산림에서 자연 성장을 유지하게 하고 인공 개입을 하지 않아 15년 삼의 생존률이 고작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천연 삼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1헥타르당 1,000개의 인삼을 수확하고 있는데

개당 인삼의 시장가치는 100~1,000원에 달한다.

림하삼산업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보호를 촉진했다. 신합향은 '림하경제 + 특색재배' 모식을 탐구하여 천연 림하삼 개발에 대한 압력을 줄였고 '나무를 채벌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목표를 달성했다.

현재 전 향의 림하삼 재배면적은 꾸준히 확대되어 '림하삼 + 대전삼'이

룬구동의 산업구도를 형성했고 촌민들 또한 재배, 수확 등 과정에서 '집문 앞' 취업을 실현해 인당 일평균 200원 수입을 더 올리고 있다.

안도현 신합향은 향후 림하삼산업을 주축으로 '당조식 + 합작사 + 농가' 협동발전기제를 심화하고 림하삼경제의 규모화 발전,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여 향촌 진흥을 위한 생태 진흥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 안도뉴스